




G20 재무장관 회의

미국 워싱턴 D.C. 10.23(수) ~ 24(목)

최상목 부총리,

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성과 환영,
주요국 재무장관과 공급망 협력방안 등 논의



올해 G20 재무트랙 핵심 성과인 MDB 개혁 로드맵 마련 환영

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 변화 등
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하고,
이를 뒷받침할 자금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
수원국 맞춤형·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평가
(최상목 부총리)



G20 재무장관 회의



불평등^①, 기후대응^②, 세계경제 분절화^③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한 해법 제안

- ①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 → 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 방안 논의 필요
- ②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별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바탕으로 각국의 기후행동 참여 독려
- ③ 세계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글로벌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 데 G20의 주도적 역할 제안



일본 가토 신임 재무장관과 첫 만남을 통해 협력관계 강화

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,
지속적인 소통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
협력관계를 한층 심화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



호주 재무장관과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방안 논의

한국의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,
한국 기업들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



IMF 총재와 지역금융안전망 강화 등 협력방안 논의

저소득·개발도상국 지원 확대, 지역금융안전망*(RFA) 강화 등 분야에서
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

* 지역금융안전망(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s, RFA)
: 외환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체결한 지역 내 협정